



제02호 / '17.4.21(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mu.kr

임금이 올라야 경제도 산다

3차 교섭, 지부교섭 요구안 설명

회사가 많이 내려놔야 한다

20일(목) 한국JCC에서 3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김정태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 대표로 JCC 대표이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저성장에 빠져 허우적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여전히 노동자는 저임금

올해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 154,883원 인상이다. 노조는 초과근무 없는 안정적, 고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부양가족은 3.6명이며 표준생계비는 6,544,972원이다. 올해 기본급을 154,883원 인상해야 겨우 표준생계비의 73.9%에 달한다.

사용자들은 노사 상생을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의 양보를 이야기한다. 보수언론과 정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귀족노조 이야기는 노동자들 중 상위 1%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한민국 노동자 중 280만명은 최저임금(월 135만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어 최저임금조차도 못받는 노동자가 260만명에 달한다. 지부 조합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속년수가 얼마 되지 않는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고 있다.

지부는 올해 임금인상과 더불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퇴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병원 진료로 인한 조퇴는 유급으로 보장돼야 건강권을 지킬 수 있고, 임금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부는 각종 선거, 병역의무, 공공기관 출두,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등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민권 보장 요구도 함께 하고 있다.

헬조선, 흙수저 극복하는 투쟁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흙수저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노동자 서민에게도 희망을 주려면 임금이 올라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 수 있다. 지부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도 쟁취하고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함께 올리는 투쟁을 만들자.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임단투를 만들자.

3차 교섭 속기록

공생을 위해선 사측이 많이 내려놔야

사 : 먼저 누추한 곳에서 모시게 되어 죄송하다. 일년이 금방 지난 것 같다. 회사가 10년, 20년 존속하려면 회사가 발전해야 한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같이 존속하고 같이 발전하려면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회사 발전이 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빨리 슬기롭게 해결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회사 발전에 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노 : 우리가 07년 이후로 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일부에서 완성차 노동자들이 1억을 받는다고 귀족 노동자라고 이야기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의 1%도 안 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돌파해야 한다. 노동자들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속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헬조선, 흡수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체 함께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 노동자들이 소비해서 경기도 살아날 수 있도록 교섭도 그렇게 풀어나가자. 사측이 많이 내려놔야 한다. 회사가 부를 어느 정도 내려놔야 공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사람의 희생으로는 노사 공생이 될 수 없다.

오늘 진행은 요구안 설명을 하고 실무에서 원활히 논의되지 못한 차기 교섭일정 논의하고 질의응답은 차기 교섭에서 하자. 요구안 설명 전 각 사업장별로 매년 교섭이 들어가면 지회 교섭을 하는데 그 절차에 혼동이 있는 것 같아 간략히 설명 하겠다.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승인이 나야 지부에서 다룰 수 있다. 중앙교

섭이 체결되지 않으면 지부, 지회교섭이 체결되지 않는다. 사업장 교섭은 의견접근이 되면 지부 운영위 심의 진행해야 한다. 그 이후 중앙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그 이후에 위원장 직인 사용을 요청하고 그 이후 조인식이 가능하다.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금속노조가 단일노조인 산별노조로서 그 규율이 엄격하게 체계화 되어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불승인되고 조인식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사업장에서는 교섭을 재차 개최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 사측도 조직 내 결정사항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궁금한 점은 지부나 지회 통해서 질의해 달라.

〈사무국장 요구안 설명〉

질의는 차기 교섭에서 받겠다.

차기 교섭 일정 관련해서 지부교섭이 진행되는 당일 전체 사업장이 동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27일과 4일은 교섭을 진행하지는 의견을 전달했다. 각 사별 입장 말씀해주시고 논의하자.

사 : 27일은 JCC 창립기념일, 4일은 KDK 휴무이다. 중앙교섭도 2일, 9일 교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두 번 다 쉬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무리가 있으면 27일 조합 측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교섭 진행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다. 4일은 KDK 휴무이고 다른 회사도 사정이 있다. 27일은 진행하고 4일은 중앙도 2일 쉬니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노 : 타 지역은 2일부터 쉬는 곳이 많다. 우리도 만약에 4일 노사가 다 쉰다고 하면 교섭 연기할 수 있다. 쉴 거면 같이 쉬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니? 웬만하면 4일은 다 쉬는 걸로 해서 논의해보시고 차기 교섭에서 얘기해보자.